

성씨의 기원

一德

소개글

목차

1	성씨여행	5
2	기자계	7
3	김수로계	8
4	박혁거세계	10
5	석탈해계	12
6	김알지계	13
7	신라육부계	15
8	기타 신라발원성씨	17
9	고구려계	18
10	백제계	19
11	가야계 외	20
12	대조영계	21
13	탐라계	22
14	왕건계	23
15	고려근원 성씨	24
16	삼국시대 때 도래인	26
17	고려초 도래인	28
18	제국대장 배종	30
19	노국대장배종	31
20	임란시	33
21	소현세자와	35
22	일본계	36
23	여진계	37
24	월남계	38
25	기타민족	39

26	전설을 가진 성씨	41
27	현대에서 성의 의미	43

성씨여행

인간들이 자유로이 채집생활을 하다가,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이 시작되었고 이전부터 발생된 씨족사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그 씨족사회는 부족사회가 되고 그리고 좀 더 발전하여 부족국가 고대국가로의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기준점은 씨족사회이다. 이 씨족들은 고대국가가 성립되면서 지배계층이 되느냐 피지배 계층이 되느냐에 따라 씨족의 성쇠가 결정되었고 6부촌으로 시작된 신라발생 씨족들이 현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강세이다.

신라3왕족(경주박씨, 경주석씨, 경주김씨)계와 6부촌(경주이씨, 경주최씨, 경주-동래정씨, 경주손씨, 경주배씨, 경주설씨)과 삼국통일에 협력한 금관가야의 김해김씨를 합하면 1700여만이고 연계가 불확실한 것 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반수가 이 집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패자인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진주강씨를 제외하곤 대성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고구려왕족은 아예 없어지고, 백제, 고려, 발해왕족은 명맥만을 유지하여 역사는 승자의 편에 선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성씨들은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계속 이어져 왔다.

조선의 유교문화는 하나의 문종에서 출세자가 있으면 그의 문종은 호강하는 것이 당연 한 것으로 문종을 빛내기 위해 끌고 당기고 하여 한국의 패거리문화의 근간이 되기도 하지만, 유교사회인 조선에서는 출세한 형제가 다른 못사는 형제를 돌보는 것을 아름답게 보아 왔으며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 그 중요성은 매우 낮아 졌지만, 아직까지도 자식과 의를 끊고자 하면 호적에서 이름을 판다는 개념이 남아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성씨에 대한 관념은 뿌리 깊다.

서양사회에서 왕가에서나 가질 수 있는 족보는 우리나라 거의 전 국민이 가지고 있으며, 공자의 자손과 월남의 이씨왕조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 가는 것이 우리 국민이다.

우리나라 성씨는 자연발생적인 씨족에서 중국문화가 들어오면서 중국식 성을 만들었고, 고려초에서 중엽에 중국의 많은 성씨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하게 자리 잡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천민까지 성을 만들거나 사서 오늘에 이르렀다.

200이 넘는 우리나라 성씨를 다 섭렵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조 단군)

기자계

청주한씨는 기자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

기자는 은나라 왕족으로서 은나라가 주나라에게 망하자 동래하였다 하며 삼국유사에 의하면 기자가 동래하자 단군은 기자를 피해 장당경으로 옮겨 갔다 한다.

기자가 조선이 왕이 된 것은 기원전 1102년이고 41세가 흘러 준왕 때 연나라 유민 위망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한씨의 족보에 의하면 나라를 빼앗긴 준왕(애왕)은 금마로 도읍을 옮겨서 마한의 왕이 되었고 그의 8세 왕인 원왕(元王)때 고구려의 침입으로 첫째는 고구려로 들어가 선우씨가 되었고, 둘째는 한씨, 셋째는 기씨가 되었다 한다.

현재 남한에는 태원선우씨가 3,500여명, 청주한씨가 65만여명, 행주쑤씨가 2만여명 행주箕씨가 2천여명 살고 있다 . 청주한씨는 한명회, 한확등이 유명하고, 기씨에는 기황후가 있다.

기자가 동래 할 때 동반한 성씨가 있었는데 함열남궁씨(2만), 함평홍씨(2.5만), 봉화쑤씨(2만), 태인景씨(2,500), 토산극씨(600명)이 있다.



(드라마 신돈에서 기황후)

김수로계

김해김씨, 김해허씨(양천허씨), 인천이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단일본의 성씨가 김해김씨인데 그 시조가 금관가야의 창업자 김수로 왕이다. 김수로왕은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과 혼인을 하여 10남 2녀를 낳았는데 이중 2남과 3남은 허황후의 성을 따라 허씨가 되었고 나머지 8명의 아들은 김씨 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12세손인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이 중시조로 한 김해김씨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로 400만명이 넘는다.

한편, 허씨로는 허황후의 후손들이 각각 양천허씨, 김해허씨로, 그 허씨에서 한분파가 인천이씨로 모두다 수로왕의 후예라 하여 가락종친회를 만들고 수로왕의 후손임을 자처하는데 김해김씨가 410만, 진주,금릉김씨 4만, 인천이씨 7만, 양천허씨 13만, 김해허씨 12만, 하양, 태인허씨 2만 합하여 450만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의 9%를 점하고 있다.

허황후가 인도에서 왔다는 사실은 직접 인도에서 가지고 왔다는 파사석탑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석재이고, 우리나라의 타지에는 없고 인도에서 유행하던 두 마리의 물고기 그림인 雙魚紋등으로 인하여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허황후와 같이 왔다고 전해지는 황후의 오빠로 스님이 된 장유화상 보옥선사와 파사탑, 가야라는 국명, 만년에 칠불암을 짓는 등의 설화는 불교가 공인되기 훨씬 이전에 한반도에 전파 되었음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드라마 김수로에서 김수로와 허황옥)

박혁거세계

박혁거세는 기사를 중국계로 본다면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성씨의 시조이다.

알려진 바대로 신라 육부 촌장들이 말의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를 신라의 임금으로 추대하였다. 박씨들은 그 뒤 2대 남해, 3대 유리왕, 그리고 5-8대 53-55대임금등 10명의 임금을 배출하였다.

신라 54대 경명왕은 대부분의 박씨들의 중시조가 되는데 그의

장자인 박언침은 300만의 밀양박씨,

2자인 박언성은 4만명의 고령박씨,

3자인 박언신은 13만의 함양박씨,

4자인 박언립은 6만의 죽산박씨,

5자인 박언창는 6만의 상주, 충주 박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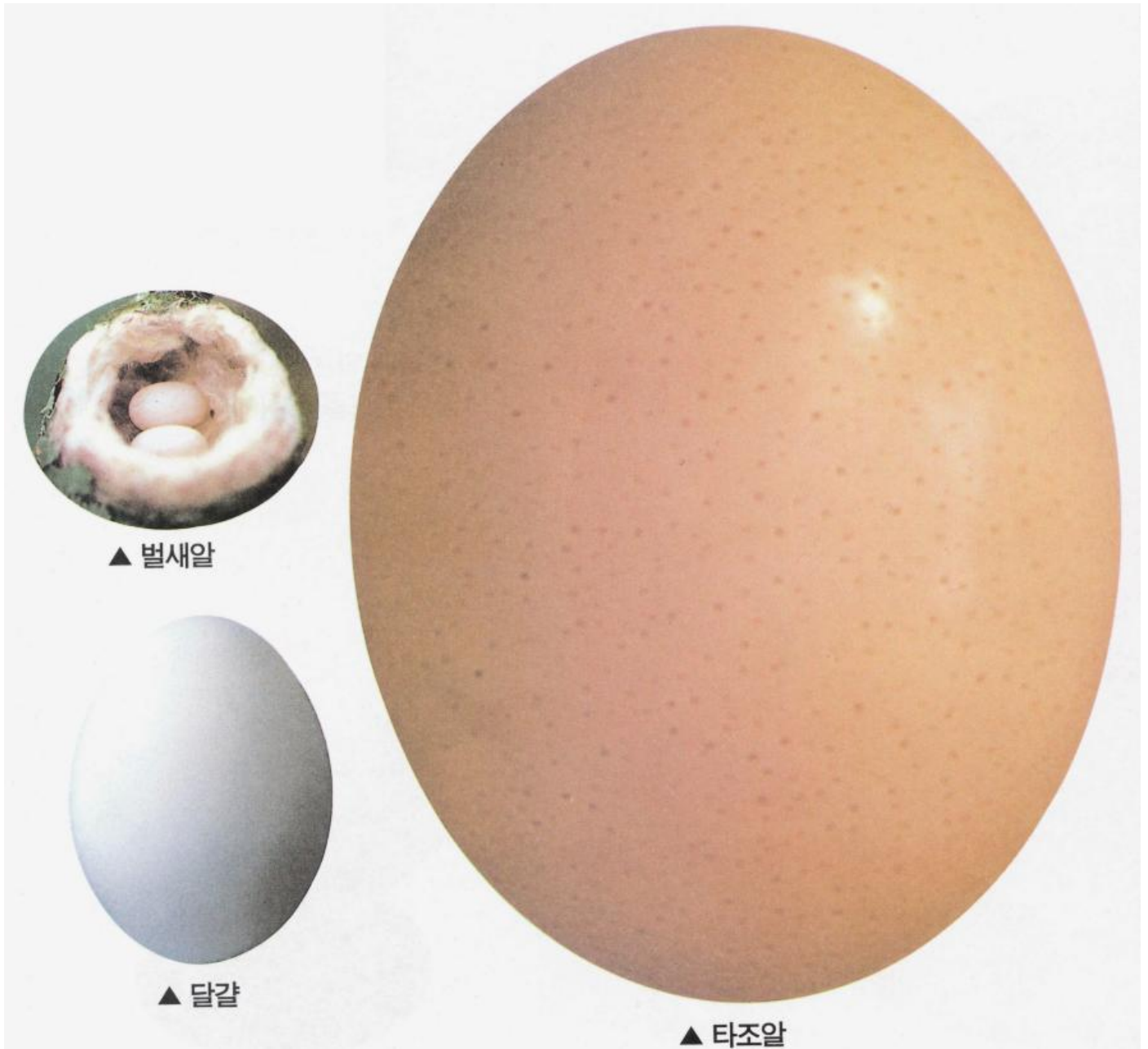
6자인 박언화는 8만의 무안박씨,

7자인 박언지는 2만의 춘천박씨,

8자인 박언의는 5만의 경주-월성박씨,

9자인 박순교는 2만의 울산박씨의 시조가 되었고

그 외 반남박씨(14만)등을 합하면 총 380만의 후손을 거느린 거대 성씨가 된다.



(여러 알들, 말이 알을 낳았다면 아마도 타조알보다 컸을 것이다)

석탈해계

석탈해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용성국의 왕과 적녀국의 왕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왕의 버림을 받고 궤짝에 실려 표류하다가 지금의 포항바다에 표류하였다가 2대 임금인 남해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4대 임금이 된다.

그는 출신이 인도인지 일본인지, 동예인지, 비슷한 시기에 인도에서 온 가야의 허황후와 같이 왔다가 김수로왕과 갈등으로 신라로 왔다는 등의 여러 설이 있으나 외지에서 온 것은 틀림이 없다.

기원 전후의 가야와 신라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게 국제적인 교류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석탈해를 포함하여 8왕이 신라왕이 되었으나 신라 초창기여서 이름나는 왕은 별로 없다.

현재 그의 후손인 경주석씨는 약 1만명이 살고 있다.



(드라마 김수로에서 석탈해)

김알지계

김알지는 석탈해왕 때 신라 계림에서 닭우는 소리의 전설을 가진 인물이다.

그의 6대손인 미추왕이 신라왕이 되면서 신라 56대중 38왕을 배출한 신라 최대 지배계급이 된다.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자 휴도왕의 태자가 무제에 충성함으로서 김씨 성을 하사 받고 김일제(金日□)가 된다. 이 김일제의 후손이 김알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일제는 모친인 연지(閼氏:흉노의 왕비를 지칭)와 같이 잡혔는데 이는 혁거세 부인인 알영(閼英)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동해안 일대에도 서흉노(서양인)의 유골이 많이 발견 되는 것을 보면 당시 북방에는 느슨한 국경으로 인해 자유로운 연결고리가 북방민족인 흉노와 신라 간에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신라가 망한 후에도 여진이 세운 금나라는 신라에서 출발 되었다는 것이 정사인 金史에 명시 되었을 뿐 아니라 김씨 성과 금나라는 같은 金이란 한자를 사용하며 한자에서는 발음 또한 같다. 금사에서는 금나라 시조인 아골타의 선조인 김함보가 신라에서 왔다고 하였고,

마의태자의 장자인 김일의 자손 중에 일부는 부안 김씨가 되었고 일부가 김함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나라를 계승한 청나라의 마지막 왕인 선통제의 이름이 愛新覺羅溥儀이다. 청나라 황족의 성씨가 愛新覺羅는 신라를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분명한 글귀로 보아서 흉노, 신라김씨, 금나라황실, 청나라 황실 간에는 혈연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김알지계의 대표적인 중시조는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다.

경주김씨는 경순왕을 시조로 하여 180만의 인구를 자랑하며

경순왕의 장자 마의태자인 김일은 6만의 부안김씨,

2자인 김굉은 5만의 나주김씨, 2만의 월성김씨,

3자인 김명종은 강화, 우봉, 영천김씨 등 합 3만명의 후손,

4자인 김은열은 51만의 김녕김씨, 43만의 (舊)안동김씨, 10만의 청풍김씨, 8만의 청도김씨,

6만의 전주김씨, 3만의 영광김씨, 3만의 서흥김씨등 130여만명

5자인 김석은 25만의 의성김씨를 포함하여 , 개성, 광주, 고령김씨등 32만명

6자인 김정은 청주김씨, 강서김씨등 3만의 후손

7자인 김선은 4만의 연양김씨

8자인 김위웅은 8만의 삼척김씨

9자인 김덕지는 울산 수원김씨등 5만의 후손등

경순왕의 후손만으로도 390만명, 그리고 그 외 김알지 후손으로 알려진

문성왕의 후손인 11만의 선산김씨, 신무왕의 후손으로 알려진 85만의 광산김씨, 무열왕의 후손인 17만의 강릉김씨, 그리고 5만의 순천김씨, 8만의 연안김씨 등이 있고

경문왕의 자손이자 궁예의 후손으로 알려진 광산이씨, 고려개국공신 권행의 안동 권씨, 경순왕의 후손 수성최씨를 아울러 총 580만의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 집단이다.

여기에 더하여 청나라 황실을 더한다면 김알지와 연결된 성씨는 매우 큰 인구 집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 MBC 월화드라마 '선덕여왕'의 마지막 비밀병기로 꼽히는 김훈추 역의 유승호(MBC 제공)

신라육부계

박혁거세를 임금으로 추대한 신라 6촌장들은 유리왕에 이르러 6부로 개칭하고 각각 성을 하사 받았는데 양산촌장 알평은 이씨로, 돌산고허촌장인 소벌도리는 최씨로, 진지촌장인 지백호는 정씨로, 무산대수촌장 구례마는 손씨로, 금산가리촌장 지타는 배씨, 활산고야촌장 호진은 설씨의 성을 하사 받는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장 한국을 기원한 토속 성씨로 생각할 수 있다.

이알평을 시조로 하는 이씨는

경주이씨 140만, 합천이씨(12만), 원주이씨(7만), 재령이씨(6만)등 175만 정도이다.

그리고 이알평과 당나라 황실의 후손설이 있는 조선왕조의 주인인 전주이씨(260만), 성주, 광주, 벽진, 한산, 전의, 함양, 영천 이씨등이 10만을 넘기고 있어 이씨 전체는 620만정도이다.

소벌도리의 최씨는

경주최씨(97만), 강릉(14만), 전주(40만), 해주(18만)등과 진주 蘇씨(4만)등 200만명

지백호의 정씨는 동래(45만), 경주(30), 연일(22만), 영일(10만)등 110만명

구례마의 손씨는 밀양(28만), 경주(8만), 평해(1만)등 37만명

지타의 배씨는 경주(2만), 성주(13만), 분성-김해(7만),달성(6만), 흥해(3만)등 32만명

호진의 설씨는 순창-경주설씨의 35,000명의 후손을 가지고 있다.



(최치원)

기타 신라발원성씨

가. 차무일계(연안차씨, 문화류씨),

차무일은 기자조선 준왕 때 모함을 받아 남하하여 신라 때 공을 세워 차씨라는 성을 받는다.

그 뒤 애장왕 때 차승색이 왕위 쟁탈전에 말려 황해도로 숨었는데 이때 성을 숨겨 柳씨로 변성하였다.

태조왕건 때 공을 세운 류차달이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장자는 車孝全으로 연안차씨의 시조가 되고 2자는 柳孝金으로 문화류씨의 시조가 된다. 류씨는 이외에도 전주, 진주, 서산, 풍산등의 본관이 있으나 모두 문화류씨에서 파생된 본관이다. 현재 차씨 16만 류씨 44만이다.

나. 서신일계

서신일은 기자의 후손이라고도 하고, 신라의 개국공신인 서두라의 후손이라고도 하는데 이천의 옛이름인 서아성에 살아서 서씨가 되었다 한다. 신라 말에 살다가 은거하였는데 80이 되어서 아들을 보니 서희의 아버지 서필이다. 이가 이천서씨(17만)의 시조이고 최대성인 달성서씨(43만)도 그의 분파이며 합하여 64만의 후예가 살고 있다.

다. 기타 신라에서 발원한 성씨로는

진평왕의 사위인 조계룡을 연원하는 창녕肅씨(34만)

신라 대관 성저를 연원으로 하는 창녕成씨(17만)

신라말망 후에도 절의를 지킨 기계 兪씨(12만)

무열왕 때 태자태사 윤시영을 연원하는 칠원尹씨(6만)

행주殷씨, 진천宋씨 청주郭씨 등이 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류성룡)

고구려계

삼국을 통일한 신라계를 제외하고 고구려나 백제계는 상대적으로 적다.

고구려계의 대표성씨는 진주강씨이다.

진주姜씨는 고구려 장군 강이식을 시조로 한다. 수양제가 100만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략하였을 때 을지문덕과 더불어 강이식 장군은 요동성과 살수에서 수나라 대군을 격퇴하였다. 그의 후손이 진주강씨인데 전국에 100만정도이다.

그리고 성주都씨는 동명왕의 왕자들인 유리와 이복형제인 비류와 온조의 왕위쟁탈전에서 유리왕의 등극에 기여를 한 都祖를 개조로 하고 백제 개루왕때 도미부인으로 유명한 都彌 또한 도씨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그 후손인 도씨는 5만 명을 헤아린다.

그리고 온달장군의 후예인 봉성溫씨가 2,000여명

고구려 국사인 유기100권을 신집5권으로 역은 이문진의 후예로 알려진 익산이씨 또한 2,000여명 정도 된다.



(드라마 연개소문의 강이식)

백제계

백제계 또한 많지 않다. 그래도 고구려는 왕족인 고씨 마저 후손이 없는데 후손인 부여서씨가 전해져 온다

백제가 멸망하고 의자왕과 그의 왕자들은 당나라로 붙잡혀 가는데, 그중 3자인 부여웅(서웅)이 당나라 황제로부터 서씨를 하사 받고 웅진도독으로 보내졌다 하는데 이가 부여서씨의 시조로 본다. 부여서씨는 약 15,000명이 남아 있다.

백제계의 최대성은 쑤 씨이다. 도시조 전설은 백제 건국의 10공신중의 한명이다. 전설의 후예는 정선전씨(15만), 천안(14만), 옥천전씨(4만), 용궁(3만), 옥산(3만), 죽산(1만)등 45만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목천마씨가 있는데 비조는 마한의 왕인 馬謙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제의 건국공신 십제공신인 馬黎를 시조로 하고 있다. 목천마씨는 3만명을 헤아리고 있다.

남평문씨의 시조인 문다성은 신라 자비왕때(472년) 바위의 석함에 태어 났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후손은 38만이 된다.

백제시대에는 왕족외 8대성인 사(沙)□연(燕) □리(리)□해(解)□진(眞)□목(木)□백(□).국(國)씨가 있었다하나 國씨는 2,000명, 燕씨는 3,000여명, 眞씨는 1,500명 등이 있으나 백제의 8대성과 연관이 있는지는 고증하기가 어렵다.



(드라마 주몽에서 온조왕)

가야계 외

김수로왕을 제외한 가야계 삼한계로는

삼한초 한강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이 소국을 형성할 때 용문산 서쪽에 석성을 쌓고 웅거한 촌장으로 세칭 함왕주악이라 불리웠다고 하는 威赫을 시조로 하는 강릉(양근)함씨가 7만명,

김수로왕과 함께 구지봉에서 탄강한 여섯 동자중 제일 막내인 김말로왕은 소가야의 왕이 되었는데 이를 시조로 고성김씨는 1만명의 후손을

또 같이 태어난 古寧伽倻王의 후손으로 함창김씨가 3만명 정도가 있다.



(드라마 김수로에서 대가야의 시조 이진아시, 드라마에선 수로왕의 異父同腹형제로 나온다)

대조영계

고구려가 당에 의해 668년에 멸망하고 대조영이 그 잔존세력을 모아서 발해를 698년에 건국한다. 구당서에는 고구려인의 별종이라 하였고, 신당서에는 속말말갈이라 하였으며 유득공의 발해고에서는 고구려인으로 보고 있는데 모두가 고구려의 유민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재 인종적으로 만주족이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민족은 한민족이고 언어적으로는 통구스(에벤키)족이라 하니 고구려시대에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었다가 지역에 따라 말을 따로 사용하면서 민족이 갈려 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태자 대광현이 고려로 망명하는데 고려태조는 王繼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 대광현의 후예들은 현재 협계씨(1,300명), 남원태씨(1,100명), 영순태씨(4,100명), 밀양대씨(500명)등 모두 7,000여명의 후손이 있다.



(드라마 대조영)

탐라계

육지에서 떨어진 제주도의 개벽신화인 3성 신화에 의하면, 태고에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삼신인이 한라산 북쪽 삼성혈 땅 속에서 솟아 나와 碧浪國에서 오곡의 씨앗과, 송아지, 망아지 등을 가지고 목선을 타고 제주도 동쪽 해상으로 들어온 삼공주를 맞아 혼례를 올려 제주도 주민을 완성시킨다.

이들 중 고씨가 왕족으로서 15대 때 신라에 입조하였고, 이후 백제에도 입조하다가 45세 때인 자견왕의 태자 고말로가 고려 태조에 입조하여 탐라국호가 폐지되었으나, 조선 태종 때까지 왕자라는 칭호가 폐지된 것을 보면 조선 초까지는 어느 정도 자치가 허락 된 것으로 보인다.

고을라의 후손인 고씨는 제주(33만), 장흥(6만), 개성(1만)고씨등 약40여만이 살고 있고

양을나의 후손인 제주 梁씨는 35만

부을나의 후손인 제주 夫씨는 1만명의 후손이 있다.



(삼성혈)

왕건계

대대로 송악의 호족으로 자리 잡다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고려의 국성이 된다.

이성계에 의해 고려왕조가 멸망하면서 신라의 경주김씨와 달리 조선왕조에 의해 철저히 멸족의 참변을 당하여 쏬, 玉, 琴, 田씨 등으로 변성하고 혈맥을 유지하다가 정조 때 와서야 왕씨로 환성하고 송악의 옛 지명인 개성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따라서 그의 후손도 많지 많은데

개성왕씨(2만), 강릉왕씨(1,500명), 남양쑤씨(5,000명) 그리고 도망가면서 성이 뭐냐니까 네? 라고 해서 생긴 개성乃씨(400명)로 합하여도 3만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의 경순왕의 후손인 380만을 포함한 김알지계가 580만으로 우리나라 최대 성씨 집단에 비하면 너무나 후손이 적다.



(드라마 태조왕건)

고려근원 성씨

신라와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를 기초한 성씨는 거의가 자리를 잡았고 고려초 중국의 5대 10국시대의 혼란과 고려 광종등의 적극적인 귀화책으로 여러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자생적으로 생긴 성씨들이 생겨난다.

왕건을 도운 김선평의 안동김씨(5만)

이씨 중에는 한산, 전의, 함평, 영천이씨가 각각 10만을 넘고

견훤의 사위였다가 고려개국공신이 된 박영규의 순천박씨(9만)

진주鄭씨(24만), 하동鄭씨(16만)

한양趙씨(31만), 함안趙씨(26만), 풍양趙씨(12만),

그리고 윤신달을 조상으로 하는 파평尹씨(71만)등尹씨가 84만

장정필을 조상으로 하는 장씨는 인동張씨(59만)등 80만

나주林씨(24만),

그리고 개국공신 신승겸의 평산申씨(50만), 고령申씨(12만),

순흥安씨(47만), 진주河씨(20만), 담양田씨(13만), 단양禹씨(16만), 여흥閔씨(15만)

평강蔡씨(7만), 인천蔡씨(4만), 신천康씨(4.5만), 남원楊씨(5만), 연주玄 씨(6만), 강화魯씨(1.5만), 충주石씨(3.5만), 상주周씨(2만), 광

산卓씨(2만), 홍천龍씨(1만), 의흥芮씨(1만), 하음奉씨(1만), 청주 慶씨(1만)

등이 있는데 개중에는 연원을 중국으로 찾기도 한다.



(윤관)

삼국시대 때 도래인

우리나라의 여러 성씨가 연원을 중국에 두고 있는 것은 실제로 중국을 근원하는 성씨도 있지만 후대 중국에 대한 사대로 인하여 어떠한 중국과 연을 지어 보려는 측면도 많다.

그리고 개중에는 뚜렷하게 중국성씨 기원으로 하는 성씨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가. 남민계(영양김, 영양남, 의령남, 고성남)

당나라 현종 천보 14년(경덕왕 14)에 안렴사로 일본에 갔다가 귀로에 태풍을 만나서 신라의 인근지역인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죽도에 金忠이 표착하였는데 그가 신라의 경덕왕때 汝南에서 왔다고 南씨 성을 사성받고 남민으로 고치고 英陽縣을 식읍으로 받는다.

이후 남민의 장자인 洪輔가 영양남씨(7만), 2자인 君甫는 의령(15만), 막내 匡甫는 고성남씨(1만)의 시조가 된다. 그리고 남민(김충)의 아들 석중은 김씨 성을 받아 영양 김씨(1만)의 시조로 총 24만이다.

나. 임팔급계

임팔급은 은나라 주완의 숙부인 比干을 시조로 한다 하나 알 수 없고 우리나라 임씨 도시조인 임팔급(林八及)은 당나라 문종때 東來八學士 중 한 사람으로 들어와, 평성에 정착하였다 한다.

그래서 현재 평택임씨(21만)를 비롯해 부안(6만), 예천(6만), 조양(3만)등 40여만의 후손이 있다.

다. 황락계

우리나라 황씨의 도시조인 황락(黃洛)은 후한의 유신으로 서기 28년(신라 유리왕 5) 구대림(丘大林)과 함께 사신으로 교지국에 가던 길에 풍랑을 만나 안아진에 표착하여 그 곳에 정착 하였다.

현재 평해황씨(14만), 창원(25만), 장수(15만)등 56만이 살고 있다.

그러나 같이 표류한 평해도씨(1.4만)의 시조 구대림은 서기 663년(신라 문무왕 30) 일본에 사신으로 가다가 표류했다 한다.

라. 노수계

노수(盧穗)는 신라말에 당나라 한림학사로 신라로 동래 했다 전한다.

그의 장자가 광산노씨(8만), 2자가 교하노씨(5.5만), 3자가 풍천노씨(4만)등으로 총 아홉아들에 각각 딸 본으로 하여 20만의 후손이 살고 있다.

마. 연안이씨계

소정방의 백제 정벌시 부장으로 참전한 이무(李茂)가 귀화하여 연안후가 되어 연안이씨(15만)의 시조가 되고 그의 분파 안산이씨(3,000명)포함하여 15만의후손이다.

바. 수원백씨

당나라때 백우경(白宇經)이 간신의 모함으로 780년(신라 선덕왕 원년) 신라에 건너와 紫玉山(지금의 경주시 안강읍 옥산동) 밑에 정착하였는데 이가 수원백씨(32만)의 시조이다.

사. 丁덕성계

丁씨의 도시조 정덕성(丁德盛)은 당 선종 853년(신라 문성왕 15) 직간하다가 하다가 우리나라 압해도에 유배되어 온 것이 우리 나라 정씨의 시초라고 한다. 이후 압해가 폐읍 되어 羅州, 昌原, 靈光, 義城 4본이 있어나 압해로 통일하여 현재 16만의 후손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 영월엄씨

엄임이(嚴林義)는 당 현종이 새로운 樂章을 만들어 이를 인근의 여러 나라에 전파하기 위해 보낸 波樂使로, 신라에 동래 하였다가 본국에서 정변이 일어나자 지금의 영월 땅인 내성군에 안주하여 영월 엄씨(13만)가 되었다 한다.

같이 사신으로 온 신사랑은 영월 申씨(1만)가 되었고 서로 종씨라며 혼인하지 않았다 한다.

자. 기타

기타 온양方씨(7만), 초계卞씨(7만), 파주廉씨(5만), 함양呂씨(3만), 장흥魏씨(3만), 옥천陸씨(2만), 교동印씨(2만), 신창孟씨(2만), 제갈씨(2만, 칠원諸씨, 남양葛씨, 남양제갈씨)등도 신라시대 때 표류하거나 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라마 대왕세종에서 황희)

고려초 도래인

몽골침입을 받기 전까지의 고려때 도래인들은 다음과 같다

가. 오씨계

우리나라 뒤희는 신라 지증왕때 건너온 오침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다시 중국에 돌아 갔다가 18세손인 오연총(吳延寵)이 고려 문종때 동래 하였고 그의 6세손인 오수권은 3현제를 두었는데 장자 오현보는 해주오씨(42만), 2자 오현좌는 동북오씨(6만), 3자 오현필은 보성오씨(6만)의 시조가 되었고 거기서 다시 몇 개의 본관으로 나누어 졌는데 도합 65만을 헤아린다.

나. 송씨계

시조 송자영(宋自英)은 당나라에서 호부 상서를 지낸 송주은(宋柱殷)의 후손이다.

그의 장자는 宋惟翽 여산 송씨(24만)의 시조가 되었고, 2자 천익은 은진 송씨(21만), 막내 문익은 서산 송씨(3,000명)의 시조가 되었으며 합쳐서 47만의 후손이 살고 있다.

다. 유씨계

劉氏は 한 고조 유방(劉邦)의 41세손으로 송나라에서 병부상서를 지낸 유전(劉鋹)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북 영일군에 정착하면서 부터이다. 그후 유전의 맏아들인 유견규(劉堅規)가 거타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록昌을 관향으로삼았는데 거창유씨(2만), 분파 된 강릉유씨(18만) 등 21만의 후손이 살고 있다.

라. 현풍곽씨계

송나라 귀화 성씨로 알려진 郭氏는 곽경(郭鏡)이 고려 인종때 우리 나라에 들어와 문하시중평장사를 지내고 금자광록대부로 荀山君에 봉해졌으며 이후 포산현이 현풍으로 개칭됨에 따라 현풍곽씨(14만)이 되었다.

마. 능성구씨계

송나라가 몽골에 패하자 구존유(具存裕)가 1224년(고종 11)에 신안주씨의 시조인 朱潛과 함께 고려에 귀화하였고 주존유는 주잠의 딸과 혼인하여 능성에 뿌리를 두게 되었으며 현재 15만의 후손이 살고 있다.

바. 신안주씨계

구존유와 같이 들어온 주잠(朱潛)은 주자의 증손으로 바다를 건너 망명해 와서 錦城에 자리잡고 살았으며 이후 원나라에서 송의 유민을 압송하려 하자

능성에서 은거하였다가 여러 곳으로 이거하여 지명에 따라 따로 본관을 사용해 온 관계로 新寨, 羅州, 綾城등 45개 파로 갈리었으나 1902년 상소로 신안을 본관 복관하게 되었다.

현재 17만의 후손이 살고 있다.

사. 나주나씨

나주羅氏는 시조인 나부(羅富)가 강서성 예장으로부터 동래하여 고려조에서 정의대부로 감문위 상장군을 역임하고 나주에 정착한 것이 시원

을 이루게 되었다 하며 후손은 11만이다. 고려개국공신 나충례의 금성 나씨(4만)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 여양진씨

여양陳氏는 송나라에서 국난시 동래한 진수가 여양에서 세거하였는데 그의 후손 진충후(陳寵厚)가 고려 인종 때의 장군을 하여 그를 시조로 한다. 현재 10만의 후손이 살고 있다.

자. 충주지씨, 충주어씨

충주池氏는 중국 흥농 출신인 지경(池鏡)을 시조로 하고 있는데 960년(고려 광종 11) 태학사로서 고려에 사신으로 왔다가 정착하였다 한다. 지경의 6세손은 지중익은 태어날 때 겨드랑이에 비늘을 하고 있어 어씨로 사설받아 魚重翼이 되어 충주 어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두성은 통혼을 하지 마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충지지씨(12만), 청주지씨(1만), 단양지씨(1,400명), 충주어씨(3,000명)등 14만의후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 기타

추계秋씨(4만), 거창愼씨(4만), 평해吉씨(2만), 신창表씨(2.5만), 함평牟씨(2만), 의령余씨(1.7만), 아산蔣씨(1.8만), 함종魚氏(1.3만), 무송庾氏(1.7만), 다양鞠氏(1.6만)등이 있다.



(송시열)

제국대장공주 배종

몽골이 징키스칸에 의해 건국되고 이후 세계정벌에 나섰는데 그 무자비함이 말할 수 없었다. 당시 고려는 최씨무신 정권으로 수전에 약한 몽골군을 피하여 강화도 천도하여 40여년간 항전을 하다가 세계 유일하게 왕조의 계승을 보전 받는다.

그러나 여러모로 몽골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고려의 왕위 계승자가 몽골의 왕녀와 결혼하여 사위국이 되는데 그 첫 사례가 충렬왕과 그의 비인 제국대장공주이다.

공주는 징키스칸의 손자이자 실질적인 元 나라 창업자이며 몽골제국의 최대 판도를 이룩한 쿠빌라이의 딸이다. 1274년(원종 15) 원나라에 가 있던 세자 심(諱:忠烈王)과 결혼하여 같은 해 즉위한 충렬왕을 따라 고려에 왔는데 이때 여러 원나라 사람들이 그를 배송하게 된다. 이때 배송한 인물들은

임온(任溫)은 소흥부 자계현 사람으로 고려때 은자광록대부에 올랐으며 풍천任씨(10만)의 시조가 되었으며,

양기(楊起)는 청주양씨(3만), 밀양(5,000면), 안악(500명)양씨의 시조가 되며

연계령의 7세손 연수창(延壽耑)은 곡산연씨(2.5만)의 시조가 되며

반부(潘阜)는 거제반씨(1.3만)의 시조가 되며

범승조(范承祖)는 금성범씨(3,000명)의 시조가 되며

독고신(獨孤信)의 후손인 독고향은 충숙왕때 원나라 공주를 모셔와 남원 獨孤씨(500명)의시조가 되었다.



(연보흠 아나운서)

노국대장공주 배종

노국대장공주는 원나라의 황족인 위왕의 딸로서, 이름은 보탑실리이고 고려식 이름은 공민왕의 성을 따라 王佳珍이라 하였다. 1349년(고려 충정왕 1년) 원나라에서 공민왕과 결혼하여 고려의 왕비가 되었고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펴자 고국을 배반하고 적극 공민왕편에 서서 공민왕의 사랑을 받았다. 사후에도 공민왕은 초상화를 벽에 걸고 매우 슬퍼 했다 한다.

그 노국공주를 배송한 인물들을 보면

공소(孔紹)는 공자의 52세손으로 고려에 들어와 문하시랑평장사를 역임하고 창원의 관향을 받았으나 정조 때 공자의 고향인 곡부로 개관하였다.

공자 탄생 2556주년을 맞아 후손을 조사하니 전세계 약300만 명이 집계되었는데 중국본토가 250만이고 홍콩, 대만 외에 한국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이다.

곡부공씨(7.5만외)등 한국의 공씨는 8.5만이다.

안만세(安萬世)는 중국 太原출신으로 동래에 정착해 중국 태원을 본관으로 1,400명의 후손이 있고

정사조(程思祖)는 程顥의 후손으로 중국 하남정씨와 동류라 같은 본관으로 8,000명의후손이,

전유겸(錢惟謙)은 동래하여 최영장군의 누이와 혼인하여 문경전씨(6,000명)의 시조가 되고

감규(甘揆)는 회산감씨(2,200명)의 시조가 되고

음준(陰俊)은 죽산음씨(3,000명)의 시조가 되고

노은경(路閔微)은 개성노씨(1,600명)의 시조가 되고

팽적(彭逖)은 용강팽씨(800명)의시조가 되고

서문기(西門記)는 안음서문씨(2,000명)의 시조가 되고

방두현(龐斗賢)은 개성방씨(900명)의 시조가 되었다.

그 외 홍주皮씨(1,200명), 청주左씨(2,700명), 보성 宣등씨(3,5만), 서촉明이씨(2.5만), 청주史씨(8,000명), 수안桂씨(7,000명), 밀랑唐씨(1,000명) 등은 고려말에

태원金씨(2,500명), 광천董씨(4,000명)등은 조선초에 귀화하였다.



(드라마 신돈에서 노국대장공주)

임란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 조선은 명나라에 원군을 청하였고 임란이 끝나자 명이 멸망하면서 그 후손들이 다수 조선에 망명하게 된다.

천만리(千萬里)는 이여송과 더불어 두 아들 祥과 禧를 데리고 철기군 2만을 인솔하여 평양.곽산.동래 등지에서 대첩을 거두었고, 정유재란 때는 울산 등지에서 왜군을 섬멸했다.

전란후 두 아들과 함께 조선 땅에 남아 중국의 潁陽(영천)을 본관으로 우리 나라 천씨의 시원을 이루게 되었는데 비교적 늦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7.5만의후손을 이루었다.

석성(石星)의 부인은 우리나라 역관 홍순언의 도움을 받아 창관에서 벗어나 석성의 부인이 되고 이후 은혜를 보답코자 파병요청에 석성을 움직여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명이 멸망하자 석성의 아들인 석단이 해주에 정착하여 해주석씨(1,000명)의 시조가 된다.

진린(陳璘)또한 이순신장군과 같이 정유재란시 왜군을 섬멸하는데 크게 공을 세웠고 상소를 통해 임란이 끝나면 이순신을 청나라 정벌에 쓰라고 황제에게 간언한 사람으로 명이 멸망하자 그의 손자인 진영소가 동래하여 진린이 활약하던 해남에 자리 잡아 廣東진씨(2,500명)의 시조가 되었다.

편갈송(片碣頌)은 이여송과 같이 참전했다가 놀라서 절강편씨(1만)의 시조가 되고

가유약(賈維翰)은 참전후 전사한뒤 그의손자인 가침이 울산에 자리잡아 소주가씨(1만)의 시조가되고

팽우덕(彭友德)의 자손은 명이 망하고 귀화하여 절강팽씨(1,500)의 시조가 되고

시문용(施文用)도 참전후 돌아가지 않고 절강시씨(2,000명)의시조가 되고

장해빈(張海濱)은 참전후 유탄에 맞아 귀국치 못하고 군위에 세거 절강장씨(3,300명)의 시조가 되고

단희상도 그대로 귀화하여 江陰段씨(500명)의 시조가 되었다.

두교림(杜喬林)의 아들 두사충(杜師忠)은 참전후 대구에 정착하여 杜陵두씨의 시조가 되었는데 이전 고려때 송나라에서 건너온 杜慶寧계의 두릉두씨와 계통을 달리한다. 두교림은 대구의 대명동에 정착하였는데 사람들은 명나라 사람이 산다고 대명동이라 이름하였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진린)

소현세자와

청나라와의병자호란이 끝나자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청의 수도로 볼모 잡혀갔다가 귀국하게 되는데 이때 같이 귀국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귀화한 부류가 된다.

정선갑(鄭先甲)은 瑯琊정씨(1,000명)의시저가 되고

황공(黃功)은 杭州황씨(400명)의시조가 되고

양복길은 通州楊씨(100명)의 시조가 되고

왕이문(王以文)은 濟南왕씨(800명)의 시조가 되고

풍삼사(馮三仕)는 臨□풍씨(600명)의 시조가 된다.



(드라마 춘노에서 소현세자)

일본계

뿌리 깊은 사대사상과 소중화사상은 우리나라 성씨를 어떻게 하든 중국과 연결시켜 보려 한 점이 역력해 보인다. 일본과 여진등과도 많은 교류와 그곳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음에도 그 수는 중국에 비하면 보잘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예라고 밝히고 있는 성씨를 살펴본다, 우선 일본을 기원으로 하는 성씨는

대표적으로 우록김씨(사성김해김씨)를 들 수 있다.

시조 김충선(金忠善)은 본명이 沙也可로 임란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좌선봉장이 되어 3천의 병력을 이끌고 내침했으나 조선의 문물에 감화되어 김응서에게 귀화의 뜻을 밝혀 조선의 장수로 울산과 경주, 영천 등지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특히 그는 조선에 화포와 조총을 만드는 법과 사용술을 보급하였고, 선조 임금은 친히 그를 불러 「바다를 건너온 모래(沙)를 걸러 금(金)을 얻었다」고 하며, 김씨로 사성하였다.

그는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동에 모화당을 지었고 녹동서원에 배향되었는데 이 사실에 최근에 일본에 알려져 일본 관광객 다녀가곤 한다. 그의 후손은 13만을 헤아리는데 역사에 비해 매우 많은 수자이다. 정작 우록을 본관으로 하는 사람은 500여명이다.

김성인(金誠仁)의 본명은 沙汝某이고 임란에 들어와 귀화하여 咸博김씨(5,000명)의시조가 되었다.

그리고 괴산占씨(100명)도 일본계로 알려져 있다.



(김충선)

여진계

여진은 우리나라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민족이며, 부여, 고구려와 발해 때에는 같은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라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의 후손이 금나라와 청나라의 황족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여진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화사상의 조선에서 볼 때는 오랑캐나 야인의 대표적인 민족이어서 그를 근원으로 하는 성씨 또한 적다.

청해 이씨의 시조는 조선 개국공신인 이지란(李之蘭)이다. 본명은 통두란으로서 아버지 아라부카는 여진의 금패천호(金牌千戶)였다.

아버지에 이어 천호가 되었다가 원나라 말기 공민왕 때 많은 부하를 이끌고 귀화, 북청에 거주하면서 이성계 휘하에 들어가 이씨 성을 하사 받았으며, 이어 조선 개국공신 일등에 올라 청해백에 봉해졌다. 青海는 중국 서역쪽을 말하며 그 후손은 현재 1.2만명이다.

그리고 강의자(剛毅字)는 청나라 때 조선으로 넘어온 만주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곡산강씨(550명)의 연원을 이룬다.



(드라마 용의눈물에서 이지란역 강인덕)

월남계

월남은 우리나라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교류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유교와 불교 한문등 공통의 문화유산도 많은 나라이다.

花山李氏의 시조 이용상(李龍祥)은 안남왕국 이공온의 7세손이며, 6대 안남왕 英宗 李天祚(재위 1138-1175)의 둘째 아들로 전한다. 이용상은 리(李)왕조(1009-1225)가 췌(陳)왕조에 멸망하자 1226년(고려 고종 13) 바다를 건너 동래하여 함해도 웅진 화산에 정착하였는데 고려 고종은 이를 화산군에 봉하고 그 지역의 땅을 식읍으로 하사하였다. 웅진에 정착한 용상은 북면 봉소리 동쪽 원추형 산위에 쌓은 화산성에 올라가 망국단을 만들고 고국을 그리다가 일생을 마쳤다 한다. 그 후 몽골이 침입하자 아들들은 같이 저항하였으며 그 후손은 남한에 1,200명이 살고 있는데 한-베트남 교류가 본격화 되고나자 화산이씨 종친회에서는 베트남에 방문하게 되었고 베트남에서는 사라진 이씨왕조의 후예가 나타나姆 대서특필하게 되었고 화산이씨 전원이 1995년 베트남국적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왕조는 베트남의 최초의 왕조로 그 후예로 밝혀진 화산이씨는 매년 종친회에서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다.

정선이씨는 리왕조 4대 仁宗 이건덕(1072-1128재위)의 3자인 이양훈이 형인 5대 신종과 왕위를 다투다가 송으로 피신하여 북송 휘종 때 금나라 침입으로 난을 피하여 우리나라의 경주에 정착하였다 한다. 그의 후손은 3,000을 헤아리고 있다.



(이용상 행적 비각)

기타민족

이현(李玄)은 회골(위구르)인으로 고려 공양왕때 귀화하였다 하고 임천이씨(700명)의 시조가 된다.

설손(契遜)역시 회골(위구르)인으로 원말 중국에서 공민왕과 친분이 있어 홍건적의 난 때 고려로 피해 경주에 정착 경주楔씨(3,300명)의 시조가 된다.

장순룡(張舜龍)은 원나라의 회회계의 후손으로 제국공주를 따라 입국하였으며 덕수현을 식읍으로 하사 받았다. 덕수장씨(2만)의시조가 된다.

인후(印侯)는 본명이 후라타이로인 몽골인으로 제국대장공주와 같이 고려로 들어와 연안인씨(600명)이 된다.

빈문은 청나라 덕종때 귀화한 몽골인으로 달성彬씨(1,600명)가 된다.

명승(明昇)은 서촉명씨 연안명씨(2만)의 시조가 되는데

서촉은 秦나라 서쪽에 속해있던 지명으로 원나라가 기울어 가는 1362년 사천성 成都에 도움을 정하고 夏나라를 세웠던 明玉珍의 아들 明昇은 1366년(공민왕 16)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1371년(공민왕 20)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세력에 굴복하고 이듬해 어머니 彭씨와 함께 가족 27명을 거느리고 고려에 귀화하였는데 이때 대하는 송나라 이원호의 서하(1032-1227)와는 다른 나라이다.



(덕수장씨 제실)

전설을 가진 성씨

가. 문다성

남평문씨의 시조 文多省은 신라 말에 남평에서 출생하였는데, 서기 472년(신라 자비왕 15) 전남 나주군 남평현 동쪽에 장자지(長者池)라는 큰 못이 있고 그 못가에는 큰 바위가 솟아 있었다. 하루는 군주(郡主)가 그 바위 아래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에 오색구름이 감돌면서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신기하게 여긴 군주가 사다리를 가져오게 하여 바위위에 올라가 보니 석함(石函)이 놓여 있었다. 함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피부가 옥설(玉雪)같이 맑고 용모가 아름다운 갓난아이가 들어있었다.

기이하게 생각된 군주(郡主)가 아이를 거두어 기르니 나이 불과 5세에 문사(文思)에 저절로 통달하고 무략(武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총명(聰明)하여 사물(事物)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는지라 문(文) 을 성(姓)으로 삼게 하고 이름을 다성(多省)으로 지어주었다고 한다.

나. 궤씨

어떤 과년한 처녀가 빨래를 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굉장히 큰 새가 아래로 내려 꽃히면서 그 처녀를 날갯죽지로 뱉다 쳐버렸다. 그러니 자 빠지는 수밖에 더 있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처녀가 큰 새한테 당한 것이다. 그러고 그 새는 “궤!” 하고 날아가 버렸다.

참 정신도 없이 당했는데, 그 날로 잉태가 돼 버렸고 아들을 낳아 성씨를 뭐하나 하나다 궤씨로 하였다는 전설이 이다. 궤씨는 순창, 청주, 선산 합하여 250명이 있는데 그렇게도 희성인 궤씨에서 궤채이라는 인라인스케이트 대표선수가 나와 인기를 끌었다.

다. 윤신달

파평윤씨의 시조 尹辛達은 고려 태조를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창업에 공을 세운 명신이다. 윤신달은 경기도 파주 파평산 기슭에 있는 龍淵池라고 못 가운데 있던 玉函속에서 출생했다고 하며, 그가 옥함에서 나올 때 겨드랑이에 81개의 비늘과 발에는 7개의 검은 점이 있었고, 손바닥에는 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성을 윤으로 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지금도 윤씨들은 잉어고기를 먹지 않는다 한다.

라. 어중익

충주 어씨의 시조 魚重翼은 본성이 池氏였으나 태어날 때부터 체모가 기이하고 겨드랑이에 세개의 비늘이 있어 고려 태조가 어씨로 사성했다고 한다.



(인라인스케이트 선수 권채이)

현대에서 성의 의미

인류가 진화하면서 처음에는 침팬지처럼 다처다부인 난혼제의 사회에서 씨족은 모계중심이었다.

고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성씨가 姬, 姜씨등 女자가 들어가는 점과 현재까지도 모계사회를 유지하는 중국의 모서족 등을 참조하더라도 초기의 씨족은 어머니가 중심이었다.

아직도 성이 없는 미얀마나 부탄 등이 있기는 하지만, 농경이 시작되면서, 일부일처가 정립되고, 부계혈통이 정립되면서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동족 촌을 이루게 된다.

石家莊, 張家界처럼 중국에는 수많은 동족촌이 형성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조선 중기를 넘으면서 부계혈통이 자리 잡으면서 동족촌이란 커다란 울타리가 개인한테는 큰 버팀목이 되었고, 산업화가 되기 전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1차 사회였다.

그러나 산업화란 큰 소용돌이는 인류를 새로운 유목시대로 돌리면서 씨족이 해체되고, 4인가족마저 각각 다른 곳에서 살게하는 가족해체와 각개개인의 사회인 난혼사회로 인류는 이동 중에 있다.

이때, 성씨란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양처럼 부모 성을 같이 사용하는 것 또한, 서양 것은 무조건 좋다는 근 200년의 서양 사대사상의 조류를 따라 가는 것 같아 우스운 일이다.

이제 성이란 것은 산업화 이전에 산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는 등뼈와 같은 버팀목이었지만, 현재는 꼬리뼈와 같이 근 흔적만이 존재하고 있는 형국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 꼬리뼈라 할지라도 우리의 흔적이니 소중히 하고픈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성씨의 기원을 조명해 보았다.

성씨의 기원

블로그 一德 블로그 <http://blog.daum.net/99bjmin>

저자 一德

발행일 2012.01.20 11:50:20

 블로그